

# 실험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의 부적의 조형성

The From Charms and from the Experimental point of View

김민호, 정성환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im Min-Ho, Chung Sung-Whan  
Dept. of Industrial Design, Chonbuk National Univ.

● Keywords: Experimental point of View, Charms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실험타이포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를 시각언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험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리포 마리에가 자신이 쓴 「미래주의 선언」에서 “활력과 역동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각적 자극을 촉발할 수 있는 조형적 표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프란스리소우트(Frans Lieshoet)가 말한 바 “나에게 있어서 타이포그래피는 오직 메시지를 명료하기 위해 텍스트를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거나 텍스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독자를 더욱 쉽게 포획하며 노력한다.”라고 실험타이포그래피를 정의하였다.

또한 부적의 가치성을 말하자면 부적은 표지이며 상징부호이며 이것에 대한 유명한 연구자인 주루쥬니타프는 “하나의 상징을 체험한다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벽을 허물고 공간의 거대함을 받아들며, 생서에 앞서는 가자의 생명을 물질적 소유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상상할 수 없는 내벽 사이에서 되살려내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헤르만헤세도 “대자연은 우리에게 일정한 암호로 나타내어 보여준다. 과거 인간은 현대인보다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수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은 글을 읽어 그 뜻을 내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적 해석은 다르나 형태적 표현방법은 일치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적의 내적 질서와 원리 그리고 그 구조와 의미체계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부적이 조형언어로서의 가능성 및 조형원리, 형태적 특성을 짚어 보고자한다. 또한 시각언어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며 조형언어로서의 부적이 우리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적 표현을 실험타이포그래피의 이론적 관점에서 적용시켜 분석하며, 부적만의 또 다른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 II. 이론적 고찰

### 2-1. 실험타이포그래피의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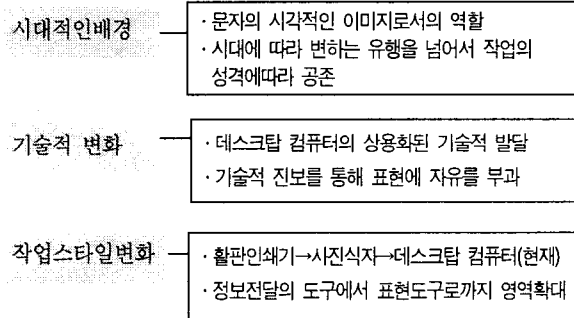
실험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언어 전달수단으로 상용하지 않고 새로운 실험적 시각전달 재료로 사용하였다. 활자와 타이포그래피 요소들 보다 자유롭고 역동감 있게 표현되어 심리적, 미적 긴장감을 유도하는 경향이 짙어 매우 흥미로우며, 시적, 철학적 분위기를 표현한다.

실험타이포그래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에 출현한 미래파, 드 스틸, 다다, 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예술과 디자인 운동들은 제현상에 대한 도전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응이었고, 이들은 타이포그래피 발전에 중요한 진보를 가져왔다.

20세기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나오게 배경뒤에는 서양철학적 사상의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리탐구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고대 서양의 철학을 지나 헤겔이 제시한 현상학은 인식론적 방법론의 모순을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존재론의 차원에서 극복하여 절대이성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지만 인간의 인식과 절대 지식의 기준이 부정적 회의론에 봉착하여 구조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구조주의는 구조를 내세워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규칙이나 틀을 찾아 이를 구조화하려 하였으나, 개인의 시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추상적 체계를 추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구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에 대두된 탈구조주의는 절대적 진리가 지니는 독선을 지적하고 진리나 개념들 사이의 차이와, 불확신성의 현시대를 인정하고, 기호의 확실성을 거부하여 기호의 의미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되거나 해석은 불가능하고 절대적 진리나 의미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 2-2.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래피 현황



### 2-3 부적의 정의 및 개념

사전적의미로 정의하면 종이에 글씨나 그림, 기호등을 그린 것으로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주술적 도구.

부적(符籙)에서 부(符)라는 글자는 상형 문자로, 원시 시대 씨족 부락인들이 전쟁이나 위험한 사냥을 나갈 적마다 족장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상서를 받아낸 징험을, 대나무로 영물(靈物)을 만들어 용사의 목에 걸거나 발목에 채워 행운을 바랐던 고대인의 풍습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적(籙)은 부(符)에 따르는 문자로서, 초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 부(符)의 활용성이 생기며 그 성질에 알맞은 문자가 부에 따르는 의미로 적(籙)이라 한다.

부적은 경면주사로 쓰는데, 꼭 붉은 글씨로 쓰는 것만이 부적이라 아니라, 좋은그림의 액자, 민화, 좋은 붓글씨, 간판, 마크, 마스코트, 동물, 식물 등등이 모두 부적의 작용을 한다. 부적의 역할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발현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 2-3 부적의 본질성

부적의 의미란 마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

에 대상을 느끼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강해진다. 부적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나고 둥글고 뾰족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강하거나 또 그 반대로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모양을 우리의 마음에 나타낼 때 그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감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며 그것을 증시하고자하는 행위를 사랑이라 한다. 감정-욕망-사랑이 바로 에너지의 참모습이며 부적의 진정한 모습이기도하다.

### 2-4부적의 조형요소 및 형태적 특성

국내에서 흔히 알려진 부적들은 대부분 한자의 파자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큰 대, 귀신 귀, 문 문, 쇠 금, 용용, 빛 광 같은 글자들이 교묘하게 형태가 비틀어진 채 기록돼 있다. 여기에 기를 모은다는 달팽이 모양의 기호나 만사 형통하게 한다는 X 자 형태의 기호 등이 들어가기도 한다.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1. 문자, 기호, 그림, 상형문자로 형성
2.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서 그림형상
3. 보는 시각과 믿는 마음에 따라 의미해석에도 다른 의미 부여
4. 대칭구조 속에 비대칭구조의 조화
5.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
6. 상징적, 심볼적 이미지업과 시각표현

최근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부적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어 시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부적을 그릴 때는 한달음에 붓을 휘두른다. 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붓을 내버려두면 이상한 문양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네 모난 창호지 모서리마다 방위에 맞는 알듯 모를듯한 기이한 모양의 자그만 상징들이 그려진다. 마치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듯하지만 동서남북 방향에 액을 막는 장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영혼을 빼껴내는 것이다. 부적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화사에 덧붙여 내려오는 이야기밖에는 전할 수 없다.

부적이란 것은 무슨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때에는 이렇고, 저런 때에는는 저렇다는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 III. 실험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의 형태적 공통점 비교

인간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잠재된 세계, 동시에 한 개인의 내면 속에 있지만 전일적인 우주, 전체가 함께 호흡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그 세계를 교감하게 하는 것이 예술의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주술사, 마법사, 또는 무당이다. 무당으로서의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신비를 구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과 세계가 처한 질병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주술사로서의 예술가는 치유하는 자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의 타이포그래피 작업은 '가독성' 위주의 질서 정연하고 합리적인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성이 살아있는 표현 위주의 직관적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읽혀지는' 타이포그래피 일색이 아닌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피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작업들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열린' 방식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념과 인생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다. 다수의 의도, 다양한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이해 방식과 향유 방식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흥미로운 예술작품으로 간주되며, 개성도 가장 순수하게 표현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으로 볼 때 부적과의 상통하는 부분을 실험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비교해본 결과의 요지는 '명확함(Clarify)'이다.

실험타이포그래피 이론과 조형분석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기능의 원리, 조형의 원리, 조형의 시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세분하면

1. 탈 정형화 스타일에 의한 개성화
  2. 가독성과 이독을 중심의 전통적 레이아웃보다는 스타일 중심의 감각적 작품
  3. 관찰시점의 다각화에 의한 동적 구성
  4. 문맥 중심의 테스트 구조형성이 아닌 시각적 콘트라스트와 주된 단어 이미지의 연상 이미지 강화
  5. 색상의 다양화와 풍부한 질감의 표현
  6. 단어와 문맥의 심볼화에 의한 이미지업과 시각표현 강화
  7. 비정형적 시각요소의 부각
  8. 설명이나 묘사가 아닌 새롭고 '특특한' 형태로 재구성
-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즉 '가독성과'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이라 여겼던 '텍스트'보다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남겨 놓고 있음을 실험타이포그래피와 부적에 형태적이 면에서 찾아 볼 수가 있었다.

###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각에 역행하는 디지털시대의 실험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부적을 연결시켜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영적인 능력'이 우선되던 부적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적인 타이포와 그래픽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부적의 '본질'이 중심되던 신통력만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에게 하찮게 무시되던 주변적상황(조형적 형태)에도 시각적,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해야할 관점을 볼 수가 있었다.

이젠 부적의 '다양성'과 '의외성'을 추구한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의 시각으로 현대 문화에 어떻게 끌어들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은 과거의 유물의 아니라, 오늘날 재생되어야 할 이 시대의 문화이다. 실험타이포그래피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카슨은 "한국디자인은 한국에서 온 것처럼 보여야 한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고정된 모범답안을 피하면서, 디자인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부적의 본질적 의미의 경계를 허물며 현대라는 복잡한 성격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열린사고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여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원유홍,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논문(한국디자인학회)
- 신정우,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경향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학회)
- 백진경, 신수길,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전통시각에 대한 역설 - 데이비드 카슨의 작업을 중심으로(한국디자인학회)
-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 류 카터지움, 원유홍, 실험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 김 미현, 실험타이포그래피 혁명가 안치홀트, 디자인하우스, 2000
- 조르주 장지움, 이종인,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9
- 이재운, 이재운의 민속기행 녹진
- 김 창식, 최근 시각디자인의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강화 경향의 의미
- 움베르토 에코, 조형론 역, 열린 예술작품: 카오스모스의 시학, 새물결 1995, 1962
- <http://boojuk.com/amulet.htm>, <http://www.011-love.co.kr/>

본 연구과제는 전북대학교 연구지원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서 진행한 과제임